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주)한솔케미칼과 동원로엑스(주) 투자협약 체결식이 열린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 장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 민선9기 첫 투자유치 ‘신호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에서 (주)한솔케미칼과 동원로엑스(주)와 함께 총 1,7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반도체 소재 산업과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북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장성주 김제시장, 한강안 한솔케미칼 대표, 박성순 동원로엑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선 9기 첫 투자협약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기존 도내기업의 증설 투자와 신규 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유치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전북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첨단산업과

한솔케미칼, 완주에 1000억

동원로엑스, 김제에 770억

첨단 반도체 소재·물류 등

통해 전북 산업경쟁력 강화

도민 체감 성장 기반 마련

물류산업 분야에서 이뤄져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솔케미칼은 완주 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용 핵심 소재 제조시설과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확충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투자는 주요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을 반도체 소재 생산과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완주공장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로엑스는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770억원을 투입해 첨단 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번 투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존 전남권 물류 기능 일부를 김제로 이전해 전북권 물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지역 제조업과 식품기업의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김제가 전북 물류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총

1,770억원을 투자하고 40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동원로엑스의 경우 물류산업 확대로 105명의 간접고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김제시는 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오늘 협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민께 보여드리는 첫 번째 투자유치 성과이자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혁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첨단산업과 미래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01만호 기자

전국 서포 품고 책꽂이 온다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17~18일 개최

책꽂이 94팀에 서점 36팀까지 참여, 팝업스토어도 마련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전주형 책 박람회인 전주책페어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과 로컬공관장 모이장에서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이하 전주책페어)’를 개최한다.

‘전국 서포를 품고 책꽂이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전주책페어는 기존의 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2층)에 더해 로컬공관장 모이장(1층)으로 장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각 층에서는 다양한 강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 등이 펼쳐지며, 2층 문화공관장 작당의 책꽂이 94팀과 1층 로컬공관장 모이장의 인생서점 및 서포 36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0팀이 함께 책 축제를 벌인다. ‘서포(書舖)’는 책만드는 서점을 뜻하는 옛말로 조선후기 후기에 서점과 인쇄소를 겸했던 책 가게를 말한다. 또, 서포와 한 시대를 지키며 책 문화를 넓혀온 책꽂이 94팀이 함께 전시한다.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1층 로컬공관장 모이장 강연장에서는 첫날 △바다책방의 ‘손바닥 동시’ 낭독회 △여행마을의 ‘손끝으로 읽는 점자의 세계’ △책방 시행과작의 ‘시행착오. 진만들기’ △봄날의산책의 ‘김수에 시인과 함께하는 근대 시 산책’이 열리고, 둘째 날에는 △탐조책방의 ‘아파트 새도감 100’ 도시 탐조 이야기 △두루미책방의 ‘볼 아트테라피: 만다라 문진 만들기’ △퇴촌책방의 ‘기억 조각: 엽서아틀링 브로치 만들기’ △책방수북의 ‘내 인생 첫 문장 쓰기’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책페어는 전주 남부시장 백년시장 특성과 사업단과 연계해 20일까지 남부시장 2층 청년몰과 1층 한복잡에서 팝업스토어 백년의 서포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독립출판 큐레이션 전시와 나만의 진(Zine)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며, 행사 기간인 17일과 18일에는 도란도란 책 수다를 펼 수 있는 아지트 공간도 마련된다. /01만호 기자



지난해 열린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모습.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전북의 우수한 답례품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무더위 탈출! 시원한 휴가, 든든한 답례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 10만인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자(SMS) 수신에 동의한 기부자 가

여름 휴가철 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내달 9일까지... 도, 쌀·민물장어 등 여름맞이 답례품 추가 증정

운데 답례품 신청 순으로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추가 답례품을 증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부자는 행사 기간 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답례

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기존 답례품과 함께 약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이 제공되며, 이벤트 종료 후 일괄 배송

될 예정이다.

추가 증정 품목은 여름 휴가와 보양을 주제로 구성했다. 심리향 쌀, 초벌 민물장어, 지리산 흑돼지(오겹살·목살·앞다리살·대패오겹살 중 선택), 닭가슴살 세트, 식혜·수정과 세트, 만려견 간식 세트 등이 마련됐으며, 그 밖의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에게는 신규 답례품인 찜뽕라면 1박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01만호 기자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제10대 임실군의회

의장 정일윤

부의장 김종수

운영행정위원장 박선옥

농업복지위원장 라시열

의원 김종규

의원 김정흠

의원 임은두

의원 김진환